

이승준 02) 2009-7088
leesj@leading.co.kr

17일 뉴욕증시는 전일 단기 급등한 데 따른 매물과 '제로금리 시대'의 앞날에 대한 우려, 금융주의 실적 악화 등의 악재로 인하여 하락 마감.

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99.90p(1.12%) 떨어진 8,824.34에 장을 마감. 25개 종목이 하락세를 나타낸 가운데 씨티그룹이 가장 큰 낙폭을 기록.

S&P500 지수는 8.76p(0.96%) 하락한 904.42에 마감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.58p(0.67%) 떨어진 1,579.31에 마감.

이날 증시는 모건스탠리의 4분기 손실 소식과 전일 급등한 데 따른 매물의 출현으로 하락 출발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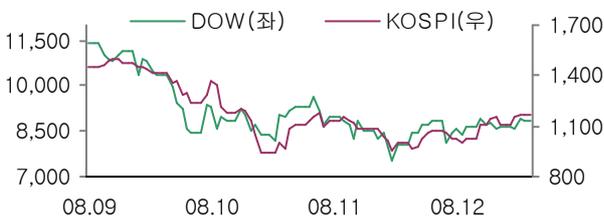
모건스탠리는 4분기 손실이 23억달러(주당2.34달러)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35억9,000만달러(주당3.61달러) 순손실보다 개선된 실적을 보였으나 시장 예상치인 주당 34센트 보다 크게 악화된 수치를 기록.

구제금융 투입으로 씨티그룹의 2대 주주가 된 미 재무부가 씨티그룹 건전성 악화 여부를 미심쩍어하고 있다는 보도가 악재로 작용, 씨티그룹 주가는 4.9% 급락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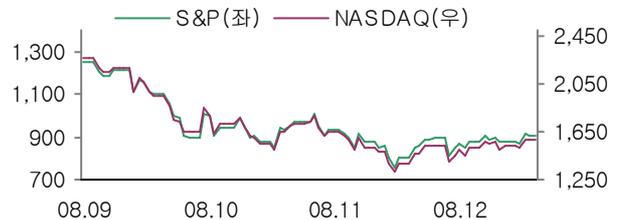
전일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로 인하할 만큼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우려가 증시에 악재로 작용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지수	증가	1일	5일	10일	1개월	3개월	12개월
DOW(좌)	8,824.34	-1.12	0.72	2.71	6.66	-20.21	-33.31
S&P(좌)	904.42	-0.96	0.58	3.87	6.31	-25.48	-37.84
NASDAQ(우)	1,579.31	-0.67	0.88	5.82	6.56	-28.47	-39.16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
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